

## 大學 教育課程의 재검토

鄭 範 謨

(翰林大·教育學)

우리 대학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重症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無反省의 습성 때문에 대학의 教育課程도 반성적인 재검토 없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放漫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대학인들의 教育課程 思考에 불박혀 있는 모순과 악습을 밝히고 미래 국제경쟁 사회를 향한 대학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미래론자들은 어제는 敎育이 사치였고 장식품이었으나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바로 社會中心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어제까지는 폭력이고 재력이었으나 이제는 知力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國際競爭도 어제까지의 領土전쟁 또는 資源전쟁이 아니라, 砲火는 없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頭腦전쟁, 知識전쟁, 敎育전쟁을 취하게 된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러한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여러 나라에서 두뇌·지식·교육의 尖端을 기대하게 하고 大學을 새로운 각광 속에 부상하게 한다. 즉, 國際的生存競爭이 대학들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쟁을 지탱하고 이겨내야 할 한국의 대학들은 建國後 약 반세기가 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한 落後 상태에 심한 重症마저 앓고 있다는 판단에 이견을 제기할 이는

없을 것이다. 시설이나 재정의 낙후보다 더 심각한 증상은, 그 연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 대학들이 좀처럼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學的弛緩症'과 '政治過剩症'일 것이다. 敎育과 學修에서의 기준, 규율, 수월성은 심하게 이완되어 있고, 한때 정부의 정치적 간섭에 시달리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운동권'의 정치선전·정치운동으로 그야말로 絜日이 별로 없다. 게다가 극히 일부 이겠지만 뇌물 취직, 수뢰 査定, 부정입학, 교수폭행 사건의 속출로 대학 전체의 道德性 결핍증까지 거론되는 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 대로는 한국의 대학이 국제경쟁에서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의 낙후에도 이어질 것임은 너무 뻔하다.

대학이 앓고 있는 이러한 重症들에는 敎育課程 문제도 끼여 있다. 대학 교육과정은 그 자체가 여러 추이와 사정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아니 거의 定期的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문제

이기도 하지만, 學的 이완증의 한 특징인 無反省의 습성 때문에 교육과정도 반성적인 계검도 없이 몇 년을 지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放漫 상태에 빠져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대학의 교육과정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二分論으로 분석하면서 改善方向을 제안하고자 한다.

### 多量皮相 대 少量徹底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이 있다. 벌써 20년 가까이 해마다 ‘최우수급’의 대학졸업생을 선발해서 4~5년간 파격적으로 풍족한 장학금을 주면서 미국의 一流大學에 유학 보내서 博士學位를 취득하게 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서 ‘일류’ 대학의 ‘일류’급 학생들이 뽑혀간다. 이 장학을 시작하고 나서 6~7년쯤 되었을 때 미국의 한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뜻밖의 편지가 장학재단에 날아왔다.

“우리 대학에 많은 우수한 학생을 좋은 장학금으로 보내주어서 고맙다. 다 공부들 잘하여 대개 成績은 전과목 A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졸업논문 연구과제를 獨自의으로 想定하고 그 연구계획을 獨創의으로 구상하여 여러 논문을 批判的으로 소화해야 할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찢찢매고 어쩔 줄을 모르니 웬일인지 모르겠다. 위 재단의 장학생 선발 방법에 좀 虛點이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실은 그 재단의 장학생 선발방법보다는 한국의 대학교육, 나아가 초·중등교육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빗대어 말하는 것과 같다. 한국의 일류대학 우등생은 많은 것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 독자적·비판적 思考는 못한다는 말이다. 사실 한국의 대학생은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너무 多量을 너무 皮相으로 배운다. 대학도 중·고등학교도 교육과정 구성에서 심한 多量皮相主義에 빠져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科目, 그리고 한 과목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內容을 넣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몇 가지 현상이 생긴다.

우선 規程上 60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專攻課程에 100, 120, 140학점까지 강의를 開設하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사치’일 뿐더러 교육과정이 아니라 ‘과목 나열’에 불과하다. 선택의 여유를 준다 해도 실은 90학점 내외면 족하다. 많은 과목을 나열하다 보니 大學院에 들어가 있을 만한 과목들이 학부과정에 마구 ‘내려오는’ 현상도 생긴다. 사실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가 보면 과목명만으로는 한국 대학에서 이미 다 배운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더 집어넣고 싶은데 학점의 한계가 있으니, 학점을 쪼개어 자연히 1학점, 2학점 등 少學點의 작은 과목들이 많이 생기는 현상도 나타난다. 본래는 多學點 강의가 원칙이다. 1, 2학점 강의는 그야말로 결할기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런 강의가 많으면 한 학기 受講科目이 많아져 학습도 산만해진다.

또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많이 이수하려 하지 않으면 그 많은 강의들이 4~5명 少人數 강의가 되든지 폐강해야 할 지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數義科目 학점을 제외한 90~100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채우도록 학생에게 強要하는 경향도 생긴다. 학생은 그 학과 이외의 다른 학과 과목을 들어볼 겨를이 없고 그것이 異端視되기도 한다. 후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것은 대학교육, 특히 綜合大學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더 심각한 폐단은 多量主義가 필연적으로 皮相主義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많은 것을 다루려 하니 대중대중 進성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 더 큰 폐해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배워도 ‘다 알고’, ‘다 배운’ 것으로 착각하고 만족한다는 것이다. 베에토벤은 유명한 음악가이고 月光曲을 작곡한 사람인 것만 알면 됐지, 그 월광곡을 들어보고 음미하고 감상하고 그래서 이 곡 일부를 외우기도 하고 실제 쳐보기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로 안다. 아인슈타인이 相對性理論을 발견했다는 것만 알면 됐지, 상대성이론이 고등수학은 아니더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개념에서 실지로 무슨 뜻인지, 그것이 과학 전체, 철학,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많은 과목과 내용을 다루면서도 “시간이 남는다”는 착각, 그래서 더 많은 과목과 내용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는 악순환

적인 思考에도 빠진다. 졸업학점 140학점이 적으니 160학점, 180학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속한다.

多量을 가르치기 위한 敎育방법은 講義式 위주인 할 수밖에 없다. 학생은 敎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그만이다. 강의와 직결된 독서, 예습, 조사, 실험, 실습, 토의, 응용, 복습 등은 안해도 좋거나 바람직하지는 하지만 못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은 이런 다양한 學習活動을 하는 것이 학습을 徹底하게 한다.

본래 학점(credit)이라는 개념은 미국 대학에서 1시간의 正課강의에 2시간의 예습·복습 시간으로 구상된 것이다. 그래서 1학기 12~15학점, 즉 1週當 12~15시간을 수강하면 예습·복습 합해서 36~45시간의 學習時間量이 되어서 보통 다른 직장에서의 週當 근무시간인 40시간과 어슷비슷해진다는 생각이다. 본래 學習內容은 少量化하고 學習活動을 多量化한다는 것이 '學點'이라는 아이디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교양이란 思考의 활동이자 아름다움의 受容이고 인간적인 情緒이며……博識은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저 박식하기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가시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다. 多量皮相은 그러한 思考의 활동은 없고 그저 '성가시고 쓸모없는 博識者'만을 길러낸다.

敎育과정 구성의 원칙은 할 수 있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限定된 敎育연한에서 이른바 學習의 轉移가 큰 것, 즉 배운 것이 다른 곳에 많이 적용되고 응용되는 少量의 本質的인 것만을 엄선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徹底하게 배우게 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 閉鎖 大 開放

해방 후 국립 서울대학교가 출발했을 때 각 대학 각 학과의 敎育과정은 짜임새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다른 學科 다른 單科大學의 강의를 아주 자유롭게 수강할 수가 있었다. 敎育학과에 있으면서도 궁급하고 또는 유익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역사학과·철학과·국문학과와

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가 떨어져 있었던 문리대 또는 법대에 가서 심리학과·철학과·불문학과·법학과의 강의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履修學點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대학의 강의를 修學能力만 있다면 모든 학생에게 開放되어 있던 셈이다. 그때에는 그것이 綜合大學의 장점이고 '아름다움'이라고 들었고 그렇다고 느꼈다.

오히려 그후 점차 각 대학 각 학과의 敎育과정에 짜임새가 생겨서 그런지, 한국의 종합대학들은 그 안의 여러 단과대학 사이 그리고 한 단과대학의 여러 學科 사이에 먼로주의적인 閉鎖의 壁이 쌓여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짜임새'다. 그래서 각 학과에서는 敎養科目 이외에는 모든 학생을 자기 전공학과 과목만 이수하게 매어두려는 경향, 그래서 전공과목도 많이 설강하고 必須科目도 많이 두는 경향, 他科에 들으러 가는 학생도 他科에서 들으러 오는 학생도 백안시하는 경향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경제학원론'을 경영학과에서 또는 '사회학개론'을 정치학과에서 따로 설강하듯이, 한 학과의 학생이 이수해야 할 전공관련 과목은 모두 그 학과에서 전공해야 한다는 폐쇄적 고집도 생겼다. 他科 設講科目을 자기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이나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아량이 없어진 것이다.

본래 專攻(major), 副專攻(minor), 學科(department)라는 개념 뒤에는 "학생은 學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專攻에 속한다"는 생각이 있다. 대학이 學點制가 아니라 중·고등학교처럼 학년마다 정해져 있는 강의를 이수하는 講座制인 경우에는 학생은 그 學科에 속한다. 그러나 學點制에서 學科는 학생이 소속하는 '學生學科(student department)'가 아니라, 敎科科目이 소속하는 '敎授學科(instructional department)'이다. 학생은 이 학과 저 학과에 설강된 과목을 살피서 수강하고 일정 수와 일정 규정에 맞으면 그것이 專攻이 되고 또는 副專攻이 된다. 물론 '學修指導(academic advising)'를 담당하는 교수는 자연 학생이 專攻으로 계획한 학과의 교수가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학생이 '내 학생'일 수는 있어도 '나의 학과 학생'은

아니다.

개념 혼동의 까다로운 해명은 그만두기로 하  
되, 대학교내 각 대학 각 학과는 서로 좀더 開放  
의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教科目도 더 交  
流하고 학생도 보다 더 교류하고 교수도 더 교  
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것이 綜合大學  
의 장점이고 이점이고 ‘멋’이다. 아주 극단의 경  
우, 한 學科에서 전공과목은 그 필요 이수학점  
인 60학점(3학점짜리로 20과목)만 설강한다면 학  
생들은 싫어도 專攻 이외의 다른 학과 과목을 이  
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  
른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90학점 내외를 설강  
한다 해도 전공은 60학점만 하고 다른 학과 강  
의를 많이 들겠다는 학생을 장려는 못할망정 막  
거나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극단의 경  
우, 한 學科는 그 학과 자체가 設講한 과목은 하  
나도 없이 이 학과 저 학과에서 설강된 과목들  
중에서 자기 ‘전공과목’을 지정하기만 하고 학  
생들에게 그 방년의 專攻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  
다. 그것을 學科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하기에  
‘委員會’라고 불러서, 실제로 ‘人間發達위원회  
(Committee on Human Development)’ 또는  
‘社會思想위원회(Committee on Social Thou-  
ghts)’를 만든 경우가 있다. 이런 위원회는 실험  
적인 새로운 學際間 學科의 구실도 하고, 그것이  
새 학과 새 대학의 탄생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教授의 ‘複數任用(double appointment)’도 開  
放이라는 견지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제도이다.  
예컨대 ‘역사철학’을 전공하는 교수가 철학과 교  
수도 되고 역사과 교수도 되는 제도이다. 그 교  
수는 두 학과 교수회에 다 참석할 수 있다. 이  
러한 새 ‘모험’은 피하고 대학간·학과간의 응  
벽을 아주 허물어 버리지는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交流가 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응벽에  
승승 구멍들은 좀 뚫어놓아야 할 것이다.

### 他律 대 自律

대학에서 學科別이 아닌 단과대학별 정도로만  
定員을 정해서 학생을 뽑아들이고, 敎育課程上  
아무 제한없이 마음대로 무슨 과목이나 선택해  
서 16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고 한다

면, 학생들은 어떤 學修過程을 밟아갈까? 흔히  
염려하는 대로 쉬운 강의, 학점이 잘 나오는 강  
의만 찾아서 이수할까? 또는 이것저것 어떤 專  
攻과 같은 또는 必須와 같은 求心點 없는 ‘잡동  
사니’를 쌓아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  
는다.

학생도 어떤 다른 까닭이 있기 전에는 자기자  
신의 實力을 기르고 궁극적인 成攻을 내다보고  
인간적인 均衡을 잡고 하는 데에 교수 못지 않  
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그는 교양과  
정 과목도 이수하고 전공도 정하고 꼭 해야 할  
것과 풀라서 해야 할 것을 가린다. 더구나 規程  
上 완전 開放이고 自律로 하더라도 과목 선택에  
관한 ‘이유있는’ 원칙과 勸獎하는 이수계획을 명  
료하게 제시하고, 더욱이 學科登錄時에 교수가  
손수 개별적으로 學修指導를 한다면 바람직한 과  
목선택을 크게 보장할 수 있다. 오히려 1950년  
대에는 학습지도를 교수들이 때로는 조교와 상  
급생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했고, 그런  
다음에야 등록용지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 관  
습이 어느새 대학가에서 호지부지되어 버렸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견지에서 꼭 부활시켜야 할 제  
도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일반적으로 必須科  
목이 너무 많다. 교양과정에서도 그렇고 전공과  
정에서도 그렇다. 교양과정에는 심지어 國策 과  
목도 있었으며, 그 여운은 아직도 남아 있다. 나  
는 지금이라도 국어·영어를 포함하는 모든 교  
양과목을 選擇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 학생들  
이 자기가 필요한 것은 더 잘 알아서 한다는 견  
제에서이다. ‘권장 이수계획’을 밝히고 ‘학습지  
도’가 꼭 수반된다면 더욱 그렇다. 대학생이면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버릇도 길  
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허진하다”면 여러 대학  
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특히 교양과목에서는 領  
域필수·科目선택의 방식을 취할 수는 있을 것  
이다. 예컨대 語文·藝術·思想·社會科學·自  
然科學의 영역에서 자기 몇 학점 이수는 필수로  
하되, 그 속에서 과목선택은 자유로이 하는 것  
이다. 이런 제도에는 학생의 自律選擇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유도 있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예컨대 교양과정의 한 영역에서 국문학개론·영문학개론·노서아문학개론·인도문학개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면, 서로 어느 나라 문학이냐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문학적 이해와 감상력과 비판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들이라는 전제이다. 따라서 이점에서는 어느 과목을 택하더라도 매한가지이다. 그러자면 네 과목 사이에서 教育目標의 상의와 상호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도 된다. 마찬가지로 교양과정의 한국사·동양사·서양사·미국사·아라비아사 등에서도, 물리학·화학·생물학 등에서도 서로 공통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專攻科目에서도 일반적으로 필수과목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양과정 이외의 과목이수를 거의 '필수적'으로 전공과목에만 묶어두려는 風土가 있는 학과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전공과정에서도 필수과목을 없애는 것에 찬성한다. 둔다면 극소수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론적·원칙적으로 필수과목이란 모든 학생이 꼭 이수해야 할 만큼 基本的인 과목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그것이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選定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학과 교수들이 判定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 판정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無私公平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 과목이 필수과목이 아니면 팔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교수, '인기' 없는 자기 과목을 필수로 해서 학생들을 묶어두려는 교수도 없지 않다. 필수과목 그리고 실질적인 필수 강제 과목이 많은 것은 시간표 작성, 교실배당, 부전공제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의 大勢는 필수과목을 줄여가는 것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選擇의 지혜를 믿으며, 先修·必須과목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면서 학수지도를 통해 권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이 선배로부터 이러이러한 과목은 실질적으로 필히 수강해야 한다는 권장이나 충고도 받으며, 그런 과목들이 재미있고 의미있고 보람있는 정말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교육과정도 학

생들이 자유분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전문대학 아닌 '종합대학'이기 때문이다.

## 즐게 대 넓게

유럽에서는 교육제도로서는 초·중등학교보다 大學이 먼저 시작되었다. 옥스포드대학은 14세기에 시작했으나, 영국의 초등학교는 500년 후인 1904년에야 생겼다. 大學은 귀족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었고, 초·중등학교가 없었던 때 주로 집에서 가정교사에게서 이른바 7教科를 중심으로 폭 넓게 이것저것 배웠다. 그것은 귀족들의 富裕와 개인교수라는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폭 넓은 敎養教育이었다. 따라서 그때 哲學者치고 수학·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고, 科學者치고 철학·문학에 웬만한 교양이 없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좁은 專攻만을 다루어도 좋았다. 이후 유럽에 리세, 김나지움, 퍼블릭 스쿨 등 중등학교가 생겼어도 그것은 예와 같이 귀족들이 가는 것이었고 이 전통은 지금도 꽤 남아 있다.

이에 반해 美國은 좀 다르다. 新大陸에서 그들은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 더구나 유럽에서 王權暴政에 시달렸던 그들은 교육에서도 철저한 民主主義의 신봉자였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귀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는 곳이었다. 미국의 實用性 강조 때문에 중등학교는 대학준비 교육도 아니었고, 그 大衆性과 非選擇性 때문에 미국의 중등교육은 대학에서의 專攻 이전에 필요한 敎養教育에서 유럽의 중등교육처럼 철저할 수가 없었으며, 미국의 대학도 능력이 웬만하고 원하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專攻 이전에 敎養教育의 필요가 커졌다. 대학에서 敎養教育課程은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 미국적인 所産이라고 해도 좋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럽 大學 유형과 미국 大學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總長 任命制나 敎授任用·昇進制에서 그렇고, 교육과정 구성과 교수방법에서도 그렇다. 해방 이후 신설된 한국의 대학들은 대중교육의

로서의 고교 졸업생이 가는 곳 그리고 그 자체의 非貴族性 때문에 실은 美國大學 유형에 더 가깝다. 거기에 유럽식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교수가 되면 거의 終身制일 만큼 身分保障이 되어 있으나, 그대신 교수가 되려면 메로는 10여 년 無給講師로 지내야 할 만큼 인정받고 선임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 반대로 미국은 대학도 많고 해서 교수가 되기는 비교적 쉽다. 그러나 교육이나 연구가 不實하던 교수로 건디어내기 어렵다. 대개 助教授 메로는 副教授까지도 契約制이고 학생들의 教授評價가 좋지 않고 연구가 시원치 않으면 물러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두 유형의 좋은 점만 혼합한 셈이어서 교수되기도 쉽고, 또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종신제처럼 安定된다. 독일이나 미국 대학보다 훨씬 더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혼합과 혼동이 교양교육에 관한 사고에도 있다. 사실 교양과정을 걸다리 정도로 생각하여 학점 수를 줄이려 하고, 실질적으로 專攻基礎科目을 교양과정으로 이수시키고 하는 경향은 大衆 普通教育인 고등학교 졸업생을 가르쳐야 하는 한국의 대학에서는 부적절한 思考이다. 더구나 편협된 入試준비 교육에 시달린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 보완으로서도 교양교육이 절실하다.

문제는 흔히 제기되듯이 대학교육에서 폭 넓게 섭렵하게 하느냐 좁게 파들어 가게 하느냐에 연결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전문대학 아닌 綜合大學의 장점, 종합대학을 만든 이유의 하나는 예컨대 英文學을 전공해도 이수능력이 있는 한 자신의 취미나 필요에 따라 교양과목 이외에도 철학과·사회학과·역사학과·천문학과·생물학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있다. 이런 폭 넓은 공부가 이제에는 어제의 고등학교처럼 대중화된 대학이 폭발하는 知識의 세계, 學際間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계에 대처하는 자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주 요청되는 綜合的 식견의 소유자와 創意的인 발상자도 여러 영역의 交配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같은 종합대학은 그저 서로 고립된 ‘學科大學’, 單科大學의

‘집합’일 뿐이다.

## 教育課程의 넓은 개념

‘교육과정’은 실은 科目名만으로 교육과정을 논하는 科目編成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진정으로 교육과정의 改編을 바란다면 이런 문제들을 폭 넓게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흔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계획 하에 겪는 모든 學習經驗’이라고 즐겨 정의한다. 그런 學習經驗은 한 단위의 교육 계획에서의 教育目標·教育內容·教授方法·教育評價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네 가지 문제를 서로 맞물리게 하며 고려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편에서의 通例이다. 이것은 큰 단위인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의 계획에서도 그렇고, 작은 한 科目의 계획에서도 그렇다. 예컨대 그저 ‘經濟學概論’이라는 科目名만 보아서는 실제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같은 과목명으로도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같은 내용으로도 다른 목적을 의도할 수 있고 다른 교수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활동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모두가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방향짓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내용·방법·평가 계획을 포함하는 體系의인 교육과정 계획은 학교교육에서는 드물고, 있어도 아주 느슨한 편이며, 오히려 教育成果 여하가 당장 실제적으로 生死勝敗에 직결되는 軍의 교육 그리고 매한가지로 그 여하가 損益成敗에 직결되는 企業體內 교육에서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한 학교 교육의 成果는 당장 눈에 보이거나 生死勝敗에 직결되어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계획을 대개는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편이다. 단 예외로 미국 醫科大學의 경우는 考試 성패, 人間生死에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교양과정 전체, 한 전공과정 전체의 경우에도 이런 체계적 고찰은 있어야겠지만, 그 논의는 여기에서 생략한다. 다만 한 과목의 경우, 그저 科

目名만 아니라 각 科目의 목표·내용·방법·평가를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안들을 모아 검토하면서 共同協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관습은 꼭 있어야 할 줄 안다. 즉, 교육과정은 교양과정이면 전공과정이면 간에 반드시 ‘講義計劃書(course syllabus)’에 결과해야 하고 또한 강의 계획서의 共同檢討가 교육과정 개편에 先行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빈 토플러는 “現代人は 너무도 어지럽게 變化하는 세계에 살다보니, 어디엔가 변화없는 安定된 곳을 찾는다”고 했다. 그래서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집은 여간해서는 이사하지 않고, 이혼을 자주 하는 사람은 친구는 항상 같은 사람이다. 대학교수는 자기 전공분야에서는 언제나 變化하고 進歩하는 尖端을 추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간다. 반면에 다른 일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도 않고 변화도 싫어한다. 그래서 한

번 산 가방은 30년을 들고 모자는 20년을 쓴다. 그리고 다른 일에는 그야말로 ‘健忘教授’가 된다.

전공분야에서는 그렇게 진보적이고 개척적이고 첨단적인 교수들의 집단인 大學이 그 教育과 行政運營의 방식에서는 전통과 인습에 실패하게 되어 있고, 옛날 자기가 학생시절 배우고 겪었던 방식을 그대로 묵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전공 이외의 다른 일에서는 옛 그대로에 만족하고 變化를 싫어하는 대학교수의 성품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행정운영·교육운영의 원리와 기법이 발견되는 상황에서는 교수에게 가끔은 再反省·再適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정보사회는 이제 국제경쟁이 대학들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가고, 국제경쟁의 最前線에 대학이 서 있기 때문이다. ■